

희망찬 도약(Quantum leap)의 그날을 기대하며...



지난 세기가 ‘인터넷 혹은 닷컴시대’라는 키워드로 막을 내렸다면, 새로운 세기는 우주시대 혹은 위성시대라는 상징어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는 ‘우주’를 화두로 하여 무수히도 많은 상상을 해왔으며, 결국 그 상상력을 바탕으로 우주를 탐험하는 과감한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정신이 지금의 우주시대를 만들어낸 핵심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자각을 바탕으로, 우주를 새로운 도전영역으로 규정하고 1996년 4월 ‘국가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그 후 좀 더 구체적이며, 동시에 국내외 여건 변화를 수용하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2000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 최종심의를 거쳐 수정된 국가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확정 한 바 있습니다.

우주기술 및 우주환경의 상업적인 이용확대, 우주기술의 자립을 궁극적인 도달점으로 하고,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수준을 2015년에 세계 10위권 안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국가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은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위성체는 2015년까지 총 20기의 인공위성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크게 통신방송위성, 다목적 실용위성 및 과학위성의 세 분야로 분류됩니다. 특히 통신방송위성은 지난해 있었던 위성방송사업 자선정과 맞물려 더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신방송위성에 기상탐재체를 공동탑재하기 위한 국내기술개발의 기획 타당성 조사가 착수되기도 했습니다.

둘째, 발사체 분야는 우주센터의 건설계획 확정을 도화선으로 하여 개발에 박차를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궤도 우주발사체의 국내 독자개발 능력 확보와 위성발사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5년에는 100kg급 저궤도 소형 위성발사체의 기술확보, 2010년에는 1톤급 저궤도 실용위성발사체 기술확보, 그리고 2015년에는 1.5톤급 저궤도 실용위성 발사체 기술확보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력발사의 토대가 되는 우주 발사장의 건설은 2005년에 소형위성발사를 위한 우주센터로 제 1차 건설완공이 계획되어 있으며, 2010년까지 실용급위성의 발사를 위한 확장일정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셋째, 우주연구개발 분야는 우주관측 및 우주탐사기술 개발, 위성체 상주 및 태양활동 연구, 우주감시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제협력분야는 국제 우주정거장 사업참여 및 우주비행사 육성 등 기술교류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은 기반기술을 확충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 회원여러분, 전문가들은 살아 움직이는 지식의 보고(寶庫)입니다. 지식을 최고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 지식으로부터 파생되어 나타나는 경험의 지식(knowhow)을 더 큰 자산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을 듯 합니다. 더욱이 최근 선진국은 과거와는 달리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매우 꺼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ESA와 같은 국가간 협력도 참여국가간의 비슷한 기술수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과 노하우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이 세계와 발맞춰나가고, 공조체제를 통한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연구회의 회원 여러분과 회원사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주개발의 방향을 모색하고, 여러 나라와의 기술교류 및 공동개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의 기회가 여러분의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우주개발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우주산업개발도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였습니다. 희망찬 도약에의 그 날을 기대하며 우주개발의 모든 관계자 분들께 힘찬 지지를 보냅니다.

부회장 **최 동 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